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한해 사업을 정리하시고 새 임원들을 선출하여 사무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단비교회에서 김장김치와 절임배추를 판매합니다. 김장김치는 10kg에 8만원, 절임배추는 20kg에 5만원입니다. 로비에서 주문 받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그 누군가에게 마음이 담긴 칭찬과 격려를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이 커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말 하는 이나 듣는 이나.

오늘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안수 이윤석 문복순 이근식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박영신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박영희 김종락  
 오늘설거지봉사 : 양상철 박재란 류준모 심호선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이주율 현우영  
 새 교 우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단풍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했던 이파리를 떨구며 맨몸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를 둘러싼 여러 허울을 내려놓고 진실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자신의 연약함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을 정죄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인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을 믿고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수진	김승현	김수진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영신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김준우	우순덕	김필순	류건형	이주은	문금석	민병배
문현미	박숙영	박시내	백묘현	송동준	김진영	안종일	정현주	윤성종
김윤정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예서	이용현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훈	임영	정경례	정두리	정재윤
정미경	정현신	유병선	조경자	조병억	조정연	차혜심	노미향	하정석
이명희	한상경	홍춘숙	무명					

### 감사헌금:

이우원 옥귀희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무명

### 녹색꿈헌금:

박숙영 이범춘 이선화 이재문 추현영

### 생일감사헌금:

박옥식 조병주

장노최장정박박이이안정박김이손	혜순희영영숙홍호순형홍영혜재흥범손	속옥영숙재선숙숙숙숙선경흥석성	백박최신진곽허김권오서조오이곽	혜성경영영영권정금미현정향자범근상	속희미신숙희운순숙속정순미영식상	백김이박김박허유이이김심	혜재경혜홍정영형수희상	속문원관재운남숙정우	정박이정곽배이김안정	리자희례희순광속선분
-----------------	-------------------	-----------------	-----------------	-------------------	------------------	--------------	-------------	------------	------------	------------

## 불춤

양평 칼수제비집 황토 벽난로가 불을 돌리네  
 장작개비는 잎 다 내던지고 물 말리며 불을 기다렸던가  
 저리 황홀한 불춤으로  
 바람 너울 타던  
 이파리 푸른 물의 기억을 마지막 내모는 거 아닐까  
 한쪽 기억 다 지운 자리로  
 먼 숲이 돌아오네  
 나뭇가지 탁탁 치는 새의 부리 소리 따라  
 목백일홍 꽃잎들 하나씩 문 열고  
 무더기로 흐드러지다  
 생애 동안 피운 꽃들 순간에 다 보여주네/  
 노래방에서의 광란을 도로 답아  
 노래방을 나서는 너의 씩씩함처럼  
 아궁이는 뜨거움 다한 후의 재를 담고  
 사랑이 끝난 후에도 함께 살아내는 몸을 보이네  
 물속에 불 담은 수십 년  
 불 지피면 물을 버리고 불로 타오를/ 너여, 나여  
 우리 삶 어느 절정을 꺼내어 불로 보일 것인지를  
 수십 혹은 수백 년 살았던 삶을 순간에 다시 일으키는  
 어떤 목숨의 타오름이 물네

- 정영선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전 도 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전도사 : 이재훈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도서관장 : 박혜경
---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가야 할 곳을 바로 보고 용감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쉽게 낙심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일의 성패를 떠나 우리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관심하며 살겠습니다. 역경 너머에 있는 약속을 굳게 믿고 용감히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윤정덕 장로

다음 주 예배 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익 장로	최희영 선생 김정민 권사

11월	영접위원	한상익 정한구 조선환 왕영순 강인숙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 겸손한 순종에 관하여

누가 그대의 편이고, 누가 대적인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에 마음 쓰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그 어떤 악한 행동으로도 해칠 수 없습니다. 잠잠히 고난을 당하다 보면, 주님이 그대를 돕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할 시기와 방법을 알고 계시므로,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혼란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알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

겸손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 때에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보다 더 나은 점을 발견하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먼저 그대 자신이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합니다. 정욕적인 사람은 선을 악으로 바꾸기도 하고, 쉽게 악을 믿기도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꿉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만과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은 온갖 의심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그 자신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꼭 해야 할 일을 빠뜨리곤 합니다. 그는 남들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

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대 자신에 대해 신중한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이웃의 유익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음을 바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변명은 기꺼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대를 참아주기 바란다면, 그대도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대가 진정한 사랑과 겸손에서 얼마나 당신이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는 남에게 화를 내는 법은 알면서도 자신에게 분노하는 법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온유한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는 일이고, 누구나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다롭고 비뚤어진 사람, 무질서한 사람, 혹은 거슬리는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며, 매우 칭찬받을 만하고 용감한 일입니다.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평화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골칫거리지만, 스스로에게 더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평화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겸허하게 고난을 겪는 데서 옵니다. 고난을 겪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평화를 가장 잘 지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자요, 세상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친구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